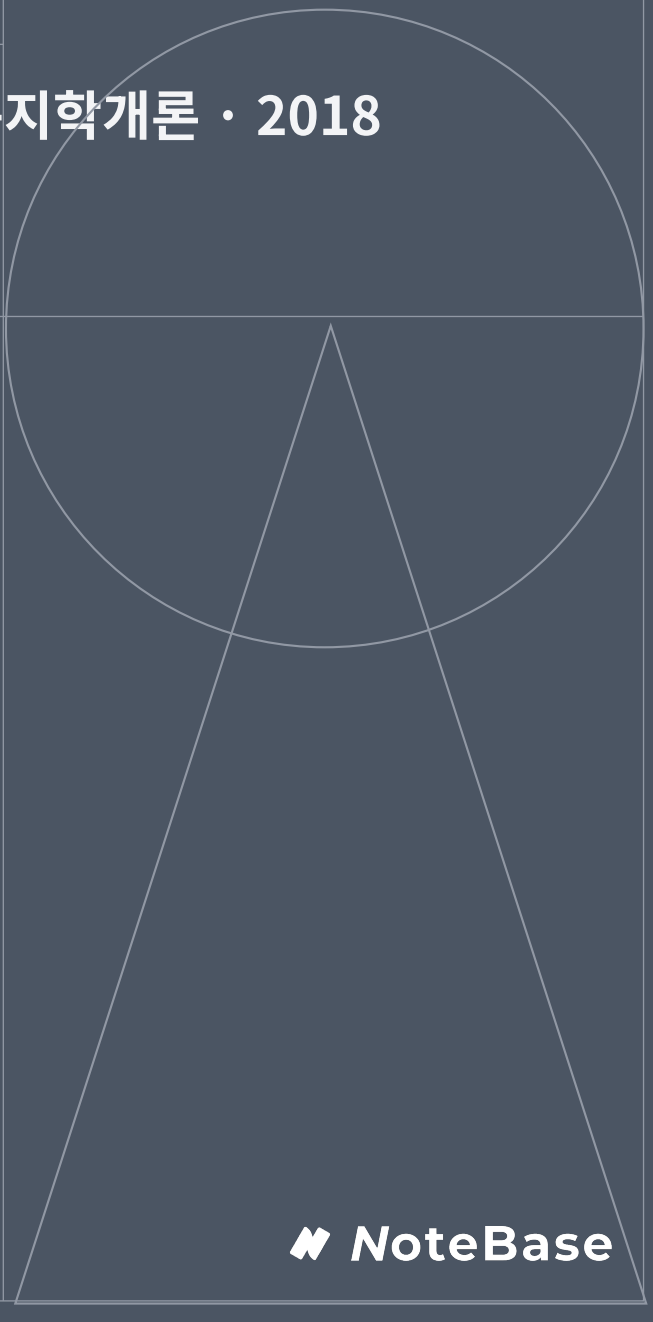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18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18

문 1. 사회복지관 사업의 3대 기능분야가 아닌 것은?

① 사례관리기능

② 지역조직화기능

③ 서비스제공기능

④ 역량강화기능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역량강화는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주도성을 높이는 실천 방향이며, 사회복지관 사업의 **독립된 3대 기능분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통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업의 3대 기능은 **사례관리기능·서비스제공기능·지역조직화기능**이다. 사례관리기능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욕구에 맞게 개입하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이다. 서비스제공기능은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지역조직화기능은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협력 기반을 만드는 기능이다.

이 세 기능은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이다. 주민의 역량을 높이는 활동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역량강화기능을 별도의 3대 기능분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2.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학적 실증주의(positivism)를 기반으로 한다.

② 인과관계의 법칙과 작용을 밝혀내며 가치중립적이다.

③ 귀납적 논리방법이 대부분 사용된다.

④ 주로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한 다음에 가설을 검증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질적 연구는 면접·관찰 등으로 얻은 구체적인 자료에서 공통된 의미와 개념을 찾아가는 **귀납적 논리**를 주로 사용한다. 미리 세운 가설의 검증보다 참여자의 경험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론을 형성하는 데 무게를 둔다.

선지별 해설

① X: 과학적 실증주의는 관찰·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규칙성을 밝히려는 입장으로, 주로 양적 연구의 기반이 된다. 질적 연구는 주로 **해석주의·구성주의**에 바탕을 두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사회적 현실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려 한다.

② X: 인과관계의 일반적 법칙을 밝히고 가치중립성을 지향하는 것은 실증주의에 기초한 양적 연구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질적 연구는 **특정 맥락 속 행위와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구자의 해석과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이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영향을 성찰한다.

③ O: 귀납은 개별적인 관찰 자료에서 공통된 패턴을 찾아 개념이나 이론을 형성하는 논리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면접 기록이나 관찰 자료를 분석하여 **자료에서 개념·범주를 도출**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귀납적 접근을 주로 사용한다.

④ X: 이론에서 가설을 도출한 뒤 자료로 검증하는 흐름은 **연역적 접근**으로,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한다. 질적 연구는 대체로 자료를 수집·분석하면서 개념과 설명을 형성하는 귀납적 흐름을 따른다. 다만 질적 연구에서도 기존 이론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두 접근의 차이는 주로 사용하는 논리에 있다.

NoteBase

문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②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90세까지이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이어도 요양등급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④ 고용보험은 실업 사유와 상관없이 모든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법령상 노인성 질병이 있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면**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급여는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X: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는 **90세라는 지급 종료 연령이 없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과 지급이 끝나는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③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의 대상에는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보유자**도 포함된다.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고, 제15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단순히 나이가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④ X: 실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직급여는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직 사유도 수급자격 판단에 반영**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NoteBase

문 4. 사회복지실천의 사정(assessment) 도구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가족과 환경체계의 관계를 다양한 선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족과 환경체계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나) 가족의 2⊠3세대 이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가족 내에서 반복되는 정서적·행동적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

① (가): 가계도, (나): 생태도
② (가): 생태도, (나): 소시오그램
③ (가): 소시오그램, (나): 가계도
④ (가): 생태도, (나): 가계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가족과 외부 환경체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도구는 **생태도**이다. 여러 세대의 가족 정보를 통해 반복되는 정서적·행동적 패턴을 파악하는 도구는 **가계도**이다.

대응 관계 해설

(가) 생태도: 가족을 중심으로 학교·직장·복지기관 등 **외부 환경체계와 맺는 관계**를 다양한 선으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 가족이 어디에서 지지를 얻고 어떤 관계에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겪는지 파악할 수 있다.
소시오그램은 집단 구성원 사이의 선호·거부 등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도구이므로, 가족과 외부 환경체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생태도와 구별된다.

(나) 가계도: 가족의 2⊠3세대 이상에 걸친 구성과 혈연·혼인 관계, 가족원 사이의 정서적 관계 등을 도식화한다. **여러 세대의 가족관계를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반복되는 갈등이나 행동 양상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외부 환경과의 관계보다 가족의 세대 간 관계와 패턴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생태도와 구별된다.

따라서 (가)는 생태도, (나)는 가계도이며, 이 대응은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5. 다음 사례관리실천에서 사용된 사례관리자의 관점은?

◯ 힘든 역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버티어 올 수 있었나요?
◯ 살아오면서 지금보다 조금 나았을 때는 언제였나요?
◯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① 생태체계적 관점
② 강점 관점
③ 옹호 관점
④ 네트워크 관점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역경을 견뎌 온 방법, 더 나았던 경험, 도움이 된 자원을 묻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이미 지닌 **능력과 자원**을 찾아 변화에 활용하려는 강점 관점의 접근이다.

공통 해설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고, 개인의 경험·기술·대처 능력과 주변의 지지·자원을 찾아 실천에 활용한다.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발휘한 능력과 활용 가능한 자원**에 초점을 맞춘다.

'어떻게 그렇게 버티어 올 수 있었나요?'는 역경을 견디게 한 대처 방법과 생존 능력을 찾는 질문이다. '지금보다 조금 나았을 때는 언제였나요?'는 문제가 덜했던 경험에서 효과가 있었던 행동이나 조건을 찾는다. '도움이 되어준 것은 무엇이었나요?'는 어려움에 대처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원을 확인한다. 세 질문은 모두 클라이언트가 이미 가진 강점을 발견하여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려는 것이므로 강점 관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자선조직협회(CO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별사회사업(casework) 발전에 기여
ㄴ. 과학적 자선(scientific charity)에의 기여
ㄷ.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의 기본적인 모형 제공
ㄹ. 사회조사(social survey) 기술의 발전 도모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선조직협회는 구호 대상자의 사정을 조사·기록하여 개별 지원을 체계화했다.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지역사회복지의 기본 모형**은 **인보관운동**과 연결된다.

보기별 해설

ㄱ. O: 우애방문원이 빈곤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사정과 욕구를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개인·가족의 사정에 맞추어 지원하는 활동**은 개별사회사업의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ㄴ. O: 자선조직협회는 무계획한 구호와 중복 지원을 줄이기 위해 구호 신청자를 조사·등록하고 자선기관의 활동을 조정하였다. 감정적인 시혜에 그치지 않고 **조사와 기록에 근거하여 구호를 조직화**했다는 점에서 과학적 자선에 기여하였다.

ㄷ. X: 지역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모형을 제공한 것은 **인보관운동**이다. 인보관운동은 활동가들이 빈곤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과 함께 교육·문화 활동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자선조직협회의 개별 사례 중심 접근과 달리 지역사회와 주민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ㄹ. O: 자선조직협회는 구호 대상자의 생활 상태와 빈곤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기록·축적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회문제를 파악하는 조사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며,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7.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분류한 할당의 원리와 관련하여 할당의 세부원칙, 원칙의 결정기준,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할당의 세부원칙: 귀속적 욕구, 원칙의 결정기준: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에 근거한 집단지향적 할당, 사례: 도시재개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

② 할당의 세부원칙: 보상, 원칙의 결정기준: 욕구에 대한 규범적 기준에 근거한 집단지향적 할당, 사례: 사회보험 가입자

③ 할당의 세부원칙: 진단적 구분, 원칙의 결정기준: 욕구의 기술적·진단적 기준에 근거한 개인별 할당, 사례: 「장애인복지법」 상의 수급자

④ 할당의 세부원칙: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원칙의 결정기준: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에 근거한 개인별 할당, 사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귀속적 욕구는 경제적 형편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으로 공통의 욕구를 가진 집단을 선정하는 원리이다.
도시재개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귀속적 욕구는 기존 제도로 충족되지 않는 공통의 욕구를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급여를 할당하는 원리이다. 어떤 집단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므로 '경제적 기준'을 **규범적 기준**으로 고쳐야 한다. 또한 도시재개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피해를 보전하는 '보상'의 사례이다. 귀속적 욕구의 사례로는 아동이라는 집단에 공통의 욕구가 있다고 보아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② O: 보상은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했거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은 집단의 구성원에게 급여를 할당하는 원리이다. 여기서 규범적 기준은 **기여나 피해에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형평성 판단**을 뜻한다. 사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라는 기여를 바탕으로 급여를 받을 자격을 얻으므로 보상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O: 진단적 구분은 **개별 대상자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진단적 판단**에 따라 급여 자격이나 내용을 정하는 원리이다. 장애의 상태와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정하여 급여 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수급자를 사례로 연결할 수 있다. 집단 소속만으로 욕구를 인정하는 귀속적 욕구와 달리 개인별 진단이 기준이 된다.

④ O: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지**를 기준으로 급여를 할당하는 원리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는 이러한 경제적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공공부조 대상자이므로, 경제적 기준에 근거한 개인별 할당의 사례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로스만(Rothman)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역량강화기술이 강조된다.

② 사회계획모델은 지역사회 내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갈등, 대결, 직접적 행동, 협상 등의 전술을 사용한다.

③ 사회행동모델은 소수인종집단, 학생운동, 여성해방 혹은 여권신장운동, 복지권운동, 소비자보호운동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④ 지역사회개발모델에서 지역복지실천가는 조력자, 조정자, 안내자, 문제해결기술 훈련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권력·자원 재분배와 갈등·대결·직접행동·협상은 **사회행동모델**의 특징이다. 사회계획모델은 전문가가 **자료수집과 분석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결정 능력과 자조 능력을 키우므로 **주민의 역량강화**가 강조된다.

② X: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사회적 약자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추구하고 갈등·대결·직접행동·협상 등의 전술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행동모델**이다. 사회계획모델은 전문가가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③ O: 사회행동모델은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조직화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불평등한 제도와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려 한다. 소수인종집단의 권리운동, 학생운동, 여성해방·여권신장운동, 복지권운동, 소비자보호운동 등은 **집단적 행동으로 권익과 제도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모델이 주로 활용되는 영역이다.

④ O: 지역사회개발모델에서 실천가는 주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조력자는 참여와 활동을 돕고, 조정자는 집단 간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안내자는 문제해결의 방향과 과정을 안내한다. 문제해결기술 훈련자는 주민이 토의와 의사결정 등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돕는다.

NoteBase

문 9. 아동복지 대상과 서비스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지적 서비스는 가정을 이탈한 아동이 다른 체계에 의해 보호를 받는 동안 부모를 지원하여 가족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상담서비스이다.
ㄴ. 선별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일반 아동으로 구분한다.
ㄷ. 일하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보육서비스는 보완적(보충적) 서비스에 해당된다.
ㄹ. 아동에 대한 가정 외 서비스에는 시설보호, 위탁가정, 일시보호소, 쉼터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ㅁ. 가장 예방적인 접근인 대리적 서비스는 재가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진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장 예방적인 접근으로 재가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지적 서비스**이다. 아동이 원가정을 떠나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서 부모를 대신한 양육·보호를 받는 것은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지지적 서비스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부모와 아동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상담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능력과 가족관계를 지원한다. 따라서 '가정을 이탈한 아동이 다른 체계에 의해 보호를 받는 동안'을 지지적 서비스의 전제로 삼은 부분이 잘못되었다. 원가정을 떠난 아동의 양육을 다른 가정이나 시설이 대신하는 것은 대리적 서비스이다.

ㄴ. O: 선별주의는 특별한 욕구나 어려움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므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초점을 둔다. 보편주의는 특별한 보호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복지 대상으로 본다.

ㄷ. O: 보완적 서비스 또는 보충적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기 어려울 때 **부족한 기능을 일부 보충**한다. 일하는 어머니를 돕는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돌봄을 제공하면서 가정의 양육 기능을 보완하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ㄹ. O: 가정 외 서비스는 아동이 **원가정을 떠나**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서 일정 기간 또는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서비스이다. 시설보호와 위탁가정뿐 아니라 일시보호소와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보호도 포함된다. 보호 기간이 짧더라도 원가정 밖에서 생활하며 보호받으면 가정 외 서비스에 해당한다.

ㅁ. X: 가장 예방적인 접근으로 재가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지적 서비스**이다.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이 원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가 양육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다른 가정이나 시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가정위탁·입양·시설보호 등이 해당한다.

옳지 않은 보기는 ㄱ과 ㅁ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는 탈상품화 정도가 낮다.

② 보수주의 복지체제에서는 사회보험이 발달되어 탈상품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③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서는 선별주의와 자조의 원칙에 따라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④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의 개념으로 복지국가체제를 유형화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선별주의와 자조가 아니라 **보편주의와 평등**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므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선별주의와 자조를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탈상품화는 노동력을 시장에 팔아 얻는 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과 보장 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① O: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고, 공적 지원은 주로 자산조사를 거친 저소득층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급여 수준도 낮아 생활을 유지하려면 시장소득에 의존해야 하므로 **탈상품화 정도가 낮다**.

② O: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직업과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이 발달해 가입자의 소득을 보장한다. 다만 급여의 자격과 수준이 **직업적 지위와 보험료 기여에 연계**되어 있어 모든 시민에게 같은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탈상품화 효과는 사회민주주의 체제보다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중간 수준으로 본다. 제한적이라는 말은 탈상품화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③ X: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보편주의에 기초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여 시장소득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 따라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는 부분은 맞지만, 그 근거를 '선별주의와 자조의 원칙'이라고 한 부분은 '보편주의와 평등의 원칙'으로 고쳐야 한다. 선별주의와 자조는 공적 지원을 제한하고 개인의 시장활동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체제의 특징이다.

④ O: 에스핑－앤더슨은 복지지출 규모만이 아니라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 체제로 구분했다. 탈상품화는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계층화는 복지제도가 계층 간 지위 차이를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을 뜻한다.

NoteBase

문 11. 선별적 사회복지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외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ㄴ.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대상자로 한정한다.
ㄷ.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이 없다.
ㄹ. 사회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간주한다.
ㅁ. 사회문제는 사회체계의 불완전성과 불공평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ㅁ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선별적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기보다 **보호가 필요한 특정 대상에게 제한하여** 제공하는 복지이다. 가족이나 시장으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예외주의**에 기반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예외주의는 사회복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생기는 보편적 상황보다 예외적 상황으로 보는 입장이다. 선별적 사회복지는 개인과 가족의 노력, 시장을 통한 욕구 충족을 우선하고,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개입**한다.

ㄴ. O: 선별적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대상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ㄷ. X: 대상자를 따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가 빈곤하거나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구별되어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낙인이 없거나 적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의 특징에 가깝다.

ㄹ. X: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이념적 대비에서 사회복지를 **모든 국민의 권리**로 보는 것은 보편주의의 특징이다. 선별주의는 국민이라는 지위 자체보다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이는 선별적 급여가 법률상 권리로 보장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ㅁ. X: 사회체계의 불완전성과 불공평성을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강조하는 것은 보편적·제도적 복지관에 가깝다. 선별적·잔여적 복지관은 **개인의 적응 실패나 가족 등 일차적 부양기능의 실패**에 더 주목하고, 그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선별적 사회복지의 특징에 해당하는 보기는 ㄱ, ㄴ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①이다.

NoteBase

문 12.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② 노후 소득보장정책은 기초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③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직군은 공무원과 군인뿐이다.

④ 2018년 현재 노인수당인 경로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선별주의 공공부조**이다.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과 달리,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이다.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므로 **경제적 필요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선별주의**에 해당한다. 노인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② X: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2018년 기준으로 두 제도가 각각 운영되는 이원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에는 국민연금·직역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함께 기능한다.

③ X: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직군은 공무원과 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각 직역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과 별정우체국 직원**도 제외된다. 이들은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적용을 받는다.

④ X: 경로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에 흡수·통합되었고, 기초노령연금은 다시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2018년에 운영된 제도는 기초연금**이며, 종전의 경로연금이 계속 운영된다는 설명은 시기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사회복지사가 청소년과의 면담에서 사용한 기법 ㉠, ㉡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청소년: 우리 부모님은 폭군이에요. 항상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가출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부모님 때문에 숨이 막힐 것처럼 느끼는구나. ..... (㉠)
내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과격하게 사랑을 표현한 것 같아. ..... (㉡)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잘 견뎌왔구나.

① ㉠: 해석 ㉡: 직면
② ㉠: 공감 ㉡: 직면
③ ㉠: 공감 ㉡: 재명명
④ ㉠: 명료화 ㉡: 재보증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은 청소년의 답답한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전달하는 **공감**이다. ㉡은 부모의 행동을 '미움'에서 '과격한 사랑의 표현'으로 새롭게 바라보도록 의미를 바꾸어 제시하는 **재명명**이다.

대응 관계 해설

㉠ 공감: 공감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말이나 태도로 전달하는 기법이다. '부모님 때문에 숨이 막힐 것처럼 느끼는구나'는 청소년이 느끼는 **답답함과 억압감을 이해하여 표현**한 것이다. 부모가 실제로 청소년을 미워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모호한 말의 뜻을 분명히 하는 명료화나,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 이면의 의미·원인을 설명하는 해석과 구별된다.

㉡ 재명명: 재명명은 같은 행동이나 상황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돕는 기법이다. 청소년이 부모의 행동을 '나를 미워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 사회복지사는 '과격하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는 **대안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말과 행동 또는 생각 사이의 모순·불일치를 지적하는 직면과는 다르다. 불안을 덜고 안심하도록 지지하는 재보증보다, 부모의 행동을 바라보는 의미의 틀을 바꾸는 데 초점이 있다.

㉠은 공감, ㉡은 재명명으로 연결되므로 ③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정보화에 따른 사회복지부문의 통합 전산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2000년대 이후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정부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정보들이 연결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이다.

③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기관들이 생산하는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지 않는다.

④ 통합 정보를 통한 트래킹 시스템(tracking system, 이력관리 시스템)은 생애주기별 사례관리에 긴요하지만, 클라이언트 비밀 보장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입력한 이용자·서비스 이력, 회계·후원 등의 자료를 **직접 수집·관리**한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기관들이 생산하는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실제 기능과 반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2000년대 이후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관별로 정보가 분산되면 같은 사람의 욕구와 지원 내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줄일 필요성이 높아졌다.

② O: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자의 자격과 지원 이력 등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담당 공무원은 이를 활용하여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지원 결정, 급여 지급,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X: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업무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를 **직접 수집·관리**한다. 시설이 이용자 등록과 입·퇴소,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이력, 회계·후원 내역 등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시·군·구에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직접 수집하지 않는다'를 '직접 수집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트래킹 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비스를 언제 이용했는지 이력을 이어서 파악하게 한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욕구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여러 기관의 정보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결합되면 사생활이 폭넓게 드러나고 무단 열람이나 유출의 피해도 커질 수 있으므로, **비밀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성이 생길 수 있다**.

NoteBase

문 15. 「노인복지법」상 같은 종류의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인전문병원, 주·야간보호서비스

②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④ 노인복지관, 경로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노인전문병원은 구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규정되었던 시설이고,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같은 종류로 묶을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노인전문병원은 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었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반면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로,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따라서 두 항목은 같은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노인전문병원 조항은 2011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 등에는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② O: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이러한 편의를 제공한다. 두 시설 모두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같은 종류의 시설이다.

③ O: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생겨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이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법정 시설 종류는 같다.

④ O: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관은 교양·취미생활·사회참여 등 노인복지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친목·취미 등 자율적인 여가활동을 할 장소를 제공한다. 기능에 차이가 있어도 같은 종류의 시설로 분류된다.

NoteBase

문 16. 비에스텍(Biestek)이 제시한 사회복지실천 관계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도적인 감정 표현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며,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많은 것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 -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를 각각 독특한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

③ 수용 - 클라이언트의 말과 감정에 동조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④ 자기결정 - 사회복지사는 실천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상관없이 클라이언트 스스로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정'한다는 설명은 자기결정의 한계를 무시한다. 자기결정은 존중하되,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능력, 법과 도덕, 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의도적인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원칙이다. 사회복지사는 감정 표현을 억누르거나 비난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원조에 도움이 되는 감정 표현을 격려한다.

② O: 개별화는 클라이언트를 동일한 범주의 대상자로만 보지 않고, **고유한 자질과 경험을 가진 개인**으로 이해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같은 문제를 겪더라도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원조 방법을 달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O: 수용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약점,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포함하여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이는 **모든 말이나 행동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며**,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현실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④ X: 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가 실천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욕구를 존중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그 권리에는 **의사결정 능력, 법과 도덕, 기관의 기능에 따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선택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사례에 적용된 학교사회복지 접근모델은?

낙후지역인 A지역에 소재한 B중학교 학생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정의 비율이 높고, 부모의 직업은 일용직·임시직 비율이 높았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혼자 방치되거나 오락실이나 PC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식사는 결식 또는 인스턴트식품으로 해결하는 등 물리적 방임과 의료적 방임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적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B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들을 표적집단으로 선정한 후, 교육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가까운 대학에 있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일대일 멘토링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범대학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방과후 학생들에게 학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인근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가정도우미를 추천받아 학생의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저녁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기획하였다.

① 학교변화모델
② 사회적 상호작용모델
③ 지역사회 학교모델
④ 학교－지역사회－학생관계모델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학교사회복지사가 **특정 학생집단이 처한 생활환경과 교육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학·복지관과 연계해 정서·학업·급식 지원을 마련하였다. 학생집단의 상황에 맞춰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하는 학교－지역사회－학생관계모델의 접근이다.

NoteBase

개념 구분

학교－지역사회－학생관계모델: 특정 학생집단의 특성이 학교·지역사회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교육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모델이다. 사례에서는 방임과 학교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표적집단으로 선정하고, **그 집단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구성하였다. 대학생 멘토링은 정서지원, 사범대학 학생들의 활동은 학업지원, 복지관과 연계한 가정방문 저녁밥 서비스는 결식 문제에 대응한다. 이처럼 학생집단의 생활조건과 학습 여건을 함께 개선하려는 접근이 사례에 해당한다.

학교변화모델과의 구별: 학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학교의 규범·제도·운영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사례에 제시된 직접적인 개입은 교칙이나 학교조직의 개편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학생집단을 위한 서비스의 계획과 제공이다.

사회적 상호작용모델과의 구별: 학생·가정·학교·지역사회 사이의 의사소통과 상호협조를 방해하는 **역기능적 관계의 개선**을 강조한다. 사례의 중심은 관계 갈등이나 의사소통 장애의 조정보다, 학생집단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확인된 욕구에 맞는 지원을 마련한 데 있다.

지역사회 학교모델과의 구별: 학교를 지역사회의 일부로 보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조건을 이해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은 사례와 겹치지만, 사례를 구별하는 단서는 특정 학생집단을 선정하여 그 집단의 교육기회와 생활조건에 맞춘 서비스를 계획했다는 점이다.

NoteBase

문 18.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에 기반한 약간의 정책 개선이나 수정을 강조하는 정책결정모형으로 이상적·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을 더 추구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ㄴ.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를 가정하면서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흐름이 우연히 한곳에 모여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이다.
ㄷ. 만족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적인 형태로서 중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합리모형에서와 같이 포괄적 관찰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이후 기본적인 결정을 수정·보완하면서 세부적인 사안을 점증적으로 결정한다는 모형이다.
ㄹ. 합리모형은 인간이 매우 이성적이며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정책결정에는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통찰력, 창의력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모형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본적인 정책은 포괄적으로 결정하고 세부 사항은 점증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만족모형이 아니라 **혼합모형**이다.
경제적 합리성에 직관·통찰력·창의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출발점으로 삼아 소폭 수정·보완하는 대안을 검토한다. 모든 대안 중 경제적으로 최선인 것을 찾기보다 이해관계자 간의 타협과 시민의 지지를 중시하므로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ㄴ. O: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가 각각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결합**하면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므로, 일관된 순서에 따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선택하는 과정과 구별된다.

ㄷ. X: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하여 기본적인 결정은 포괄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적으로 하는 것은 **혼합모형**이다. 만족모형은 인간의 정보와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비교해 최선을 찾기보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

ㄹ. X: 합리모형이 인간의 높은 합리성을 전제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직관·통찰력·창의력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부분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합리모형은 가능한 대안과 그 결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목표 달성에 가장 유리한 대안을 선택한다. 최적모형은 이러한 합리적 분석에 초합리적 요소도 결합한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므로, 두 보기를 묶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표에서 임계경로(critical path)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작업	선행 작업	소요 기간(일)
A	없음	2
B	A	6
C	A	4
D	B, C	2
E	D	4
F	D	3
G	E	2
H	E	4
I	F	2
J	F	1
K	G, H	2
L	I, K	2
M	J, L	3

① A → B → D → E → G → K → L → M

② A → B → D → E → H → K → L → M

③ A → C → D → E → G → K → L → M

④ A → C → D → F → H → K → L → M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임계경로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소요 기간의 합이 가장 긴 경로**이며, 전체 사업의 최소 완료 기간을 결정한다. 이 표에서는 합류 지점의 시작을 늦추는 B와 H가 포함된 경로가 임계경로이고, 총 소요 기간은 **25일**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계산 기준: 표의 '선행 작업'은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끝나야 하는 작업이고, '소요 기간'의 단위는 일이다. 사업 시작을 0일로 두고, 선행 조건을 충족한 작업을 바로 시작할 때의 가장 이른 완료 시점을 계산한다. 선행 작업이 여러 개이면 **가장 늦게 끝나는 선행 작업의 완료 시점**에 해당 작업의 소요 기간을 더한다. 이렇게 구한 최종 완료 시점을 결정하는 가장 긴 경로가 임계경로이다.

A·B·C: A는 선행 작업이 없으므로 2일에 완료된다. A 이후 B와 C는 병행할 수 있어 B는 2 + 6 = 8일, C는 2 + 4 = 6일에 완료된다.

D·E·F: D는 B와 C가 모두 끝나야 시작하므로, 6일에 끝나는 C보다 **8일에 끝나는 B**가 시작 시점을 결정한다. D는 8 + 2 = 10일에 완료된다. D 이후 E는 10 + 4 = 14일, F는 10 + 3 = 13일에 완료된다.

G·H·I·J: E 이후 G는 14 + 2 = 16일, H는 14 + 4 = 18일에 완료된다. F 이후 I는 13 + 2 = 15일, J는 13 + 1 = 14일에 완료된다. H의 선행 작업은 **F가 아니라 E**이므로 F에서 H로 바로 이어지는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K·L·M: K는 G와 H를 모두 기다리므로 H가 끝나는 18일에 시작하여 18 + 2 = 20일에 완료된다. L은 I와 K 중 늦게 끝나는 K를 기다려 20 + 2 = 22일에 완료된다. M은 J와 L 중 늦게 끝나는 L을 기다려 22 + 3 = 25일에 완료된다. 따라서 선행 조건을 지키면서 사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은 25일이다.

임계경로 도출: M의 완료를 결정하는 선행 작업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L, K, H, E, D, B, A가 이어진다. 이를 시작부터 쓰면 A → B → D → E → H → K → L → M이며, 소요 기간의 합은 2 + 6 + 2 + 4 + 4 + 2 + 2 + 3 = 25일이다. 이 경로는 ②의 배열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보기 1>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 상황에서 ㉠~㉢에 들어갈 말을 <보기 2>의 ⓐ~ⓓ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약물중독문제를 가지고 있는 실업자인 한부모 A는 딸 B를 주간보호센터에 맡기고, 본인은 약물재활치료를 받은 후 나머지 시간에 자활 근로훈련을 받는다. 만약 주간보호센터와 재활클리닉, 훈련프로그램이 각각 다른 장소와 일정으로 운영되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문제이다. A의 거주지가 약물재활치료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와 거리가 멀어서 재활치료나 근로훈련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의 문제이다.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단이 없다면 이는 (㉢)문제이다.
<보기 2>
ⓐ 단편성(fragmentation) ⓑ 비연속성(discontinuity)
ⓒ 무책임성(unaccountability) ⓓ 비접근성(inaccessibility)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여러 기관의 서비스가 조정되지 않아 따로 운영되는 것은 **단편성**, 먼 거리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비접근성**이다. 이용자가 불만을 제기할 통로조차 없는 것은 이용자의 요구에 응답할 책임이 확보되지 않은 **무책임성**의 문제이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 ⓐ 단편성. 단편성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서로 연계·조정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A에게 필요한 돌봄·재활·근로훈련이 각각 다른 장소와 일정으로 운영되어 중복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서비스 간 통합과 조정의 부족**을 보여 준다. ⓑ 비연속성은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서 이용하는 과정이 끊기거나 기관 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문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 비접근성. 비접근성은 지리적·제도적·심리적 장벽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A는 거주지와 치료센터·자활센터 사이의 **먼 거리라는 지리적 장벽**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 ⓒ 무책임성. 전달체계의 책임성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욕구와 이익에 반응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불만을 토로할 수단이 없으면 이용자는 문제를 알리거나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고, 제공기관도 이용자의 요구에 응답하도록 통제받기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책임을 물을 통로가 없는 것**은 무책임성의 문제이다.

㉠은 ⓐ, ㉡은 ⓓ, ㉢은 ⓒ로 연결되므로 ②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